

“특성화고 전공 수요 반영 못해 경쟁력 저하”

김광란 광주시의원 “취업률 정체 혁신적인 직업교육 절실”
장연주 “급식 조리원 근무환경 열악 근로격계 질한 시달려”

광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전공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근로격계 질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광란(민주·광산구 제4) 의원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성화고 절반이 넘는 학교의 지정 연도가 10년이 돼 가고 있다”며 “교육 과정의 질과 다양성이 변화해야 하지만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특성화고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 특성화고의 전체 취업률은 35%대에 정체돼 있다”며 “혁신적이고 더 풍부한 직업교

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7년 특성화고 학업중단 학생은 148명이고 이 중 학업 관련 부족을 이유로 21명이 자퇴했다”며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와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사업과 에너지밸리 사업이 추진되면 지자체 및 산단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위한 미래형 직업계고를 신설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부각됐다. 김광란 의원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의 일탈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로, 교육청은 광주 전체 유치원



김광란 시의원



장연주 시의원

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감사계획과 부정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국공립유치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많이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며 “인력은 부족하지만 시민감사관제 등을 활용해 1차로 70~80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연주(정의·비례) 의원은 이날 “학교 급식 전담 인력에 대한 검진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2년이 흘렀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격계 질한으로 고통받

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따르면 광주 근로자건강센터는 2016년 광주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하고 각급 학교 조리사, 조리원 1930명을 대상으로 근로격계 검진을 해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근로격계 증상자는 48.5%, 근로격계 검진에 따른 질환자는 47.5%. 최근 1년간 7일 이상 병원방문율은 36.4%, 최근 1년간 결근율은 7.3%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은 급식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교육청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정기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 급식소 안전조치 강화, 노동량 감소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우선 조리원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해 1인당 노동량 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언론 외면하는 포털

포털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지역신문의 뉴스 공급기회를 축소되고 있다. 이제까지 네이버는 뉴스스탠드를 통해 지역뉴스를 비교적 폭넓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PC인터넷의 뉴스스탠드에서 지역신문은 구석으로 밀렸다. 네이버 모바일의 첫 페이지에서는 지역미디어가 제공하는 지역뉴스를 아예 볼 수 없다. 네이버라는 뉴스유통의 메인스타디움에서 지역언론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다. 지역언론들은 이와 같은 차별과 소외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일보와 다음신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DMC미디어의 ‘2018 포

류한호
광주대 교수

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은 지난 4월 ‘포털-지역언론 상생법’으로 불리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하여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지역뉴스에 대한 독자의

시민-지역언론-포털 상생을 위하여

털사이트 이용 행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에서 네이버는 71.5%를, 다음은 16.3%를 차지했다. 이 시장에서 네이버는 경쟁자 없는 독점적 지배자인 셈이다.

뉴스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뉴스에 보도되면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뉴스로 보도되면 중요한 사건이 되고, 보도되지 않으면 묻혀버리고 만다. 뉴스포털이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방송만을 서비스한다면 지역이 뉴스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즉 뉴스에서 서울과 수도권만 남고, 지역은 사라진다. 나아가서 지역언론도, 지역 자체도 사라진다.

이처럼 시장지배적 뉴스포털 네이버에서 지역언론이 확대받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네이버 뉴스서비스 개편을 계기로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차제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네이버 스스로 나서서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방송도 일정 분량의 지면과 시간을 지역뉴스에 할애한다. 인구의 절반,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의 독자과 시청자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뉴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도 자신의 뉴스공간에서 지역뉴스가 일정부분 이상 차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지역언론-포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 있는 미디어기구로 자리잡아가는 방안도 있다. 포털에 의해 그 운명이 좌우되는 지역언론의 지위를 극복하고, 포털과 지역언론이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은 인권공동체를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인권포럼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7개 분야에서 총 40개의 회의와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은 외국인과 광주시민으로 구성된 광주국제교류센터 시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개회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환영사,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태호 외교부 차관·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19일 오후 ‘국내인권 정책회의’에서는 국내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인권철학과 비전을 들어보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제시한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여한다. 또 ‘광주 세계인총회’에서는 광주에 사는 17개국 이주민들이 직접 나와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의제를 논의하고 ‘광주 이주민 인권선언문’을 채택한다.

국내외 참가자들이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는 ‘인권논문 발표’, 장애인 인권사전견과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글과 사진을 담은 전시회, 5·18 민주묘지와 광주비엔날레 탐방 등이 이어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렸다. 올해 포럼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를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환경미화원 골병 든다”...광산구 100 l 종량제 봉투 폐지

주민 불편 없게 75 l 제작

‘광주 광산구가 환경미화원의 신체사고와 질환을 예방하고자 100 l 들이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없애기로 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 l 종량제 봉투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대용량 종량제 봉투 폐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75 l 짜리를 신규 제작했다. 광산구가 100 l 들이 봉투를 판매중단하기로 하면서 다

른 자치구의 참여여부도 주목된다.

100 l 종량제 봉투는 재고 물량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만 판매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달께 재고 물량이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100 l 짜리가 25kg, 75 l 짜리는 19kg이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종량제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 부피를 키우거나 압축기를 사용해 무게를 늘리는 사례가 흔하다.

환경미화원들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골절·파열·염좌·타박상·

배임·찢림 등 여러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신체 부상사고는 1465건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크고 무거운 종량제 봉투로 많은 환경미화원이 다치거나 질환을 앓는다”며 “특히나 근로격계 질환은 아무리 치료받아도 원래 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5·10·20·30·50 l 종량제 봉투는 종전대로 판매한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20일~26일 ‘중국 문화주간’ 행사

광주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제4회 중국 문화주간’ 행사를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문화주간에는 광주시민과 중국 유학생, 중국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또 북경대, 칭화대, 절강대 등 중국 8개 대학 학보사 기자단 30명이 문화주간 행사, 광주비엔날레, 광주 지역 명소를 취재해 각 대학 학보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오전 9시부터

‘2018 중국요리페스티벌’이 열린다. 요리 라이브경연 24개팀, 조각전시경연 20개팀 등 국내외 44개팀이 실력을 겨룬다.

중국 회심환경과학기술 유한공사와 광주시 소재 ㈜국토정보기술 등 건설, 환경, 의료, 물류 및 유통분야 한·중 기업 CEO 30명이 ‘한·중 기업 간 상호협력 및 교류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선포식은 오후 4시에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탄력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캣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